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한화룡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선교에 임해야 할까?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해 남북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북한선교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60년 역사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I. 4대 신화 - 1950~1980년대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떤 모양이든 60년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해 온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 필자는 그 근거를 4대 신화로 집약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위대한 수령님 - 해방신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30년대와 40년대 초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이러한 경력을 과장·왜곡하긴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조선을 해방시킨 것으로 알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2. 미제에게 백 배, 천 배의 복수를 - 승리신화

북한 주민들은 1950년 6월 25일 북침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을 김일성의 영도 하에 물리치고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미제가 100년 전부터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획책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북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엄청난 폭격으로 남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증오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3. 세상에 부럼 없으라 - 낙원신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영도 아래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자상낙원을 건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1960년대 까지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탈북자가 발생하는 오늘날과는 반대로 가난한 중국 동포들이 살 길을 찾아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통일신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폭정 아래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조선 동포들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자상최대의 과업으로 여기고 오랜 세월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왔다.



II. 5대 현상 - 1990~2000년대 북한 사회의 변화

2014년 현재 이러한 4대 신화는 그 효력을 거의 상실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으로 만드는 유일체제의 비합리성으로 199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 다음과 같은 5대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부정부패 만연

현재 북한에는 뇌물 수수와 도둑질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몰자부족이 만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직장, 공장, 대학, 군대 모두 예외가 아니다. 한 마디로 북한 사회를 지탱하던 물적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2. 미신행위 증가

요즘 북한에서는 점을 보는 등 미신 행위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난으로 사회가 불안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당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마디로 북한 사회를 지탱하던 사상적 기반마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3. 아사자 속출

1990년대 초반 식량난이 악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죽으로 버텼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옥수수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풀죽이나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급속히 상황이 나빠지더니 1998년까지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4. 탈북자 증가

1990년대 중반부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동안의 누적 건수는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도 중국에서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외부의 실상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5. 민심 이반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다. 과거에는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과 신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통제와 감시 때문에 불만을 털어놓거나 비판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 친척들에게 김정정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 주민들의 내면을 지배해온 신화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해체 현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교회는 북한의 미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선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III. 북한의 미래와 통일선교

2014년 현재 북한은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북 경협 중단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수선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과 공포로 통치해온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단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그동안 감추어졌던 외부 세계의 진실이 알려지고, 자유, 민주, 인권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김정정은 권력을 이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가 아닌가.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당분간 대내적으로는 선군 정치체제를 지속하면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을 압박해 나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어 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쌓여온 내부 모순과 불만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시에 닥칠지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 사회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통일한국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면서 준비하는 교육을 거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2만 6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돌보면서 다가올 통일을 실제로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탈북자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정립해서 성도들에게 명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이 민족통일과 북한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국 교회는 평화통일, 복지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며,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사는 신한국 시대가 열리고, 북한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가 재건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북한 당국이 인정한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험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 접촉 및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국내 탈북자 양육 및 해외 탈북자 구출 사업 등 다각도로 북한 선교 사역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공휼과 자비를 베푸사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한화룡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조교수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O.Min)하였다. 저서로 『도사선교』,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전쟁의 그늘: 1950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N.P. 근간)이 있다.